

남원시 야간·휴일 소아 진료 국비 확보

'달빛어린이병원' 남원의료원 지정...운영비 3억2000만원 아동·청소년 환자 24시간 진료체계 구축...의료비 부담 완화도

남원시가 야간·휴일 진료가 필요한 아동·청소년 의료기관 지정을 위한 국비를 확보함으로써 지역 아동·청소년 건강관리에 빈틈없는 인프라를 갖추게 됐다.

남원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달빛어린이병원) 운영지침'에 인구 감소지역이면서 응급의료 취약지역 지정기준이 신설돼 이에 해당하는 시의 사업의향에 따라 국비 3억2000만원을 확보하게 됐다.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남원의료원 인근에 건립 중인 공공산후조리원 '산후케어센터 다운'이 올해 하반기 개원 예정이지만 남원시에는 평일 야간과

휴일 소아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없어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20일 관련 지침을 개정, 남원시와 같은 응급의료 취약지역이면서 인구 감소지역인 78개 시군구를 '소아 진료 관심 지역'으로 신규 지정해 운영비의 2배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시는 보건복지부의 새로운 운영지침에 따른 특례를 발굴한 뒤 지역구 박희승 국회의원 등과 함께 보건복지부에 달빛어린이병원의 필요성을 전달하는 등 전방위적 활동을 펼쳐 국비확보라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시는 공공산후조리원 '산후케어센터 다운'과 연

계해 '남원의료원'을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운영할 예정이다.

달빛어린이병원이 운영되면 소아 환자의 24시간 진료체계 구축은 물론 기존 8만~10만원 사이 응급실 진료비용 또한 1만~2만원 선으로 낮아져 소아 양육가정의 의료비 부담도 대폭 줄어든 전망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의료 격차는 지역의 인구감소와 직결되는 만큼 지역간 의료 불균형 해소와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국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남원의료원과 긴밀히 협조해 야간과 휴일에 응급상황이 자주 발생하는 소아는 물론 산후케어센터의 신생아가 신속하고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남원=백성 기자 bs8787@kwangju.co.kr

고창군, 전국 민원서비스 평가 '우수'

전년비 2단계 상승...민원취약계층 보호·신규시책 발굴 '호평'



심덕섭(왼쪽 세번째) 고창군수가 최근 민원공무원 간담회를 갖고 격려했다. <고창군 제공>

고창군이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9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평가보다 2단계 끌어올린 것으로, 민선 8기 심덕섭 고창군수의 의지가 돋보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전국 30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민원행정 관리 ▲민원행정 활동 ▲민원 처리 성과 3개 분야(5개 항목, 20개 지표)에 대해 평가가 이뤄졌다.

고창군은 이번 평가 항목 중 민원취약계층 및 민

원담당자 보호, 민원정보 제공 및 민원법령 운영, 고충민원 해결·예방 노력 등에서 만점을 받았다.

특히 민원처리공무원과 민원인간의 만족도 향상이 높아졌다는 평가다.

고창군은 다문화나 외국인계절근로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지역 상황을 고려해 각종 민원 서식을 외국어로 작성해 배포했다.

지난해 7월부터 무인민원발급기(8대)의 발급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했고, 저녁 시간 및 휴일 이용률이 크게 높아졌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건강 먹거리 기르고 힐링...왕솔밭 텃밭 분양

61개소 11~19일까지 신청

정읍시가 다가오는 봄, 시민들을 대상으로 활발한 자연 기쁨과 이웃 소통의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왕솔밭 공동체정원' 텃밭을 분양한다.

왕솔밭정원 내 조성된 텃밭은 도시민들이 친환경 농업을 체험하고 건강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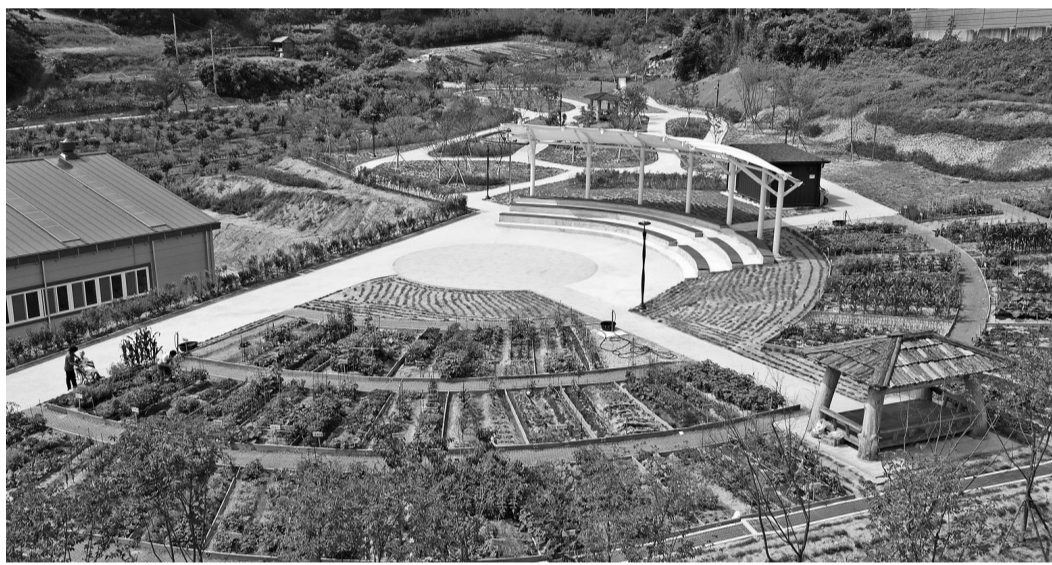
분양되는 텃밭은 총 61개소로 일반 시민에게 51개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 대상 10개소 등이다.

오는 11~19일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대상자 선정은 공정한 방식의 컴퓨터 전산 추첨을 통해 진행된다.

당첨 결과는 오는 21일 시 홈페이지 공고문과 개별 문자로 통보된다.

텃밭 분양 당점자에게는 3월4일부터 12월12일까지 9개월간의 경작권이 주어진다.

연간 사용료는 개소당 1만840원이며 1개소당 8㎡(약 2.4평) 크기로 시민들은 이곳에서 직접 퇴비를 뿌리고 원하는 모종을 심어 가꿀 수 있다.



정읍시가 시민들에게 분양할 예정인 '왕솔밭 공동체정원'.

단순한 경작공간 제공을 넘어 도시농업 활성화, 주민 간 소통 강화, 환경 보전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정읍시 관계자는 "왕솔밭 공동체정원 텃밭이 자

연을 가꾸는 즐거움을 느끼고 이웃들과 함께하는 공동체 문화를 경험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읍=박기성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ss@

남원 민생안정지원금, 상권 활성화 '원인'

3일 기준 92.2% 지급...위축된 소비 활성화로 골목상권 활기

남원시가 서민경제 안정과 영세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민생안정지원금이 소비 촉진으로 이어지며 시민과 소상공인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남원시는 지난날 20일부터 전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 3일을 기준으로 대상자인 전 시민 7만 6801명 중 92.2%인 7만2826명에게 213억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이번 민생안정지원금은 영세한 소상공인에게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대형마트와 하나마트 등 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장에 대해 사용을 제한했다.

이에 따라 시의 민생안정지원금은 전체 재원이 지역 골목상권으로 빠르게 순환되며 영세상권의 매출 증대를 주도했다.

남원시소상공인연합회 강상남 회장은 "대형마트 사용 제한으로 효과가 컸다는 점에 남원시의 사 용처 제한조치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남원=백성 기자 bs8787@kwangju.co.kr

정읍시, 저탄소 영농 농민에 활동비

중간물떼기 15만원·바이오차 투입 36만4000원...21일까지 신청

정읍시가 기후위기 대응 및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정읍시는 저탄소 영농 활동을 실천하는 농업인에게 활동비를 지원하는 이 사업의 신청을 2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배농사 시 중간물떼기, 논물 알개 걸러대기, 바이오차 투입과 같은 저탄소 농업 활동을 실천하는 농업인에게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

이다.

중간물떼기는 모내기 약 한달 후부터 용수 공급을 중단하고 논바닥이 갈라질 때까지 2주 이상을 말리는 작업이다. 논물 알개 걸러대기는 2~5cm 깊이로 알개 물을 대고 자연적으로 말린 뒤 다시 물을 대는 과정을 반복하는 방식이다.

바이오차는 목재 등을 고온에서 산소 없이 열분해해 만든 숯 형태의 유기물로 농경지에 투입하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효과를 낸다.

지원 자격은 당해연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 논을 벼 재배지로 활용하는 농업법인 또는 생산자단체로 경작 필지를 포함해 20ha 이상의 규모를 충족해야 한다.

지원 단가는 중간물떼기 15만원, 논물 알개 걸러대기 16만원, 바이오차 투입 36만4000원이다.

중간물떼기와 논물 알개 걸러대기는 병행해야 신청 가능하며 바이오차는 ha당 200kg 이상 투입해야 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법인·생산자단체는 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정읍=박기성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ss@

고창군민 안전보험 보장 3천만원까지 확대

고창군이 군민안전보험 일부 항목에 대해 보장금액을 확대해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고창군 군민안전보험은 군이 직접 보험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일상생활속에서 발생하는 재난 및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다.

고창군에 주민등록이 두고 있는 모든 주민(등록외국인 포함)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되며,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간 청구할 수 있다.

또 사고지역과 관계없이 사고 당시 고창군민이

라면 보장받을 수 있으며,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특징이 있다.

특히 올해는 22개 보험항목 중 8개 항목에 대해 보장금액의 폭을 넓혔다. 보장범위는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상해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이 최대 3000만원까지 보장된다. 또 ▲강력범죄 상해 ▲사회제난 사망에 대해서는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한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기존데크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KIBO 1509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